

# 石洲集 국역 출판과 權韓先生

석주집

권필선생

## 연꽃

(역자 : 정민 교수,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연꽃 蓮  
 연꽃 蓮  
 일 크고 葉大  
 꽃은 곱네. 花娟  
 푸른 물 잡겨 冒綠水  
 맑은 물결 씻고, 濯清漣  
 새벽이슬 향기 엉겨 香凝曉露  
 빛깔은 아침안개 부르네. 彩惹朝煙  
 움직이매 물고기 노닐 알고 動處覺魚戲  
 고요할 쯤 백로가 잠자기 좋네. 靜時宜鸞眠  
 서늘함 옥슬잔에 들 때 가장 좋고 最愛涼浸玉壺  
 슬자리에 그 빛깔 비치면 더욱 곱구나. 更嬌色照華筵  
 바람이 잎 뒤채면 기을 듯 다시 바로 서고 風翻翠蓋款還整  
 비가 구슬 쏟아 부으면 부서질 듯 등글어지네. 雨瀉明珠泮却圓  
 周茂叔은 <愛蓮說>에서 군자에 너를 견주었고 周茂叔解比於君子  
 李謫仙은 일찍이 그 천연스런 고운 모습 말하였었네 李謫仙曾語其天然  
 강물 위 비단 치마 고운 뺨 같은 꽃도 상관치 아니하고 不關江上羅裙花似類  
 산봉우리 앞 옥 우물에 배와 같은 연잎도 돌아보지 않구나 遠莫峯頭玉井藕如船  
 내 장차 이르러 옷을 만들어 입고서 티끌세상을 떠나가시는 吾將製爲裳衣離塵去俗  
 홀로 푸른 물결 밝은 달빛과 더불어 함께 마음대로 노닐으리라. 獨與滄波明月恣意周旋

※이 시는 권필(權韓, 1569~1612)이 1599년에 강화도에서 지었고, 『석주집』 권8에 실려있다.  
 식물 가운데 가지와 잎을 아꼐 만한 것이 풀이니, 소나무와 대나무요, 꽃을 아꼐 만한 것이 풀이니, 매화와 국화이다. 꽃과 잎을 모두 아꼐 만한 것이 하나이니, 연꽃이 그것이다. 내가 평생 이 다섯 가지를 아껴 우연히 李白의 三五七言을 부연하여 한에서 십언에 이르러 그쳐 다섯 편을 이루었다. 대략 그 아름다운 운치를 서술하고 아울러 스스로 기탁하였으니, 감히 형색을 묘사하여 기이한 말을 구한 것이 아니다. 기해년 윤4월 14일에 석주 나온은 적노라.  
 植物之中。枝葉可愛者二。曰松。曰竹。花可愛者二。曰梅。曰菊。花葉俱可愛者一。曰蓮。余平生酷愛此五者。偶演李白三五七言。自一言至十言而止。成五篇。略敘佳致。兼用自託。非敢描寫形也。以求奇語也。己亥臘四月十四日。石洲懶隱。志。

### ■역사기행

## 방랑시인 김삿갓 유적지를 찾아서

□ 항촌 권오창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위원)



위한 속소, 토속 식당, 산채시장 등이 있고 넓은 주차장과 수도 시설 세면시설이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다.  
 주위에는 은

충절의 고장 영월에는 김삿갓 난고(蘭草)선생의 유적지가 새롭게 조성되어 많은 사람들의 지대한 관심을 사고 있다.

이 곳을 찾아가는 데는 서울에서 철도 고속도로 승용차 등을 이용하여 약 2시간내외이면 그 곳에 도달할 수 있다. 영월 시내에서는 시내버스가 매시마다 김삿갓 유적지길을 운행한다.

영월읍에서 행정구역상으로는 김삿갓면 김삿갓도로를 따라 장릉, 고서동굴 동강영로 길을 따라 김삿갓 유적지에 닿는다. 도로 주요지점과 교량입구에 김삿갓로 안내판이 있으며 죽장을 찢고 삿갓을 쓴 석상이 서 있어서 김삿갓로의 의미를 방문객에게 어필하고 있다.

그 김삿갓은 누구인가 알아보자. 김삿갓 난고(蘭草)선생은 안동 김씨로서 고려 태사의 한분인 김 선평의 24세손으로 김안근의 둘째아들로 출생하였고 본명은 병련(炳淵)이요 자는 성심(性深)이요 호는 난고(蘭草)이다. 별호는 김삿갓이다.

선생은 5세때에 선천부사(宣川府使)였던 그의 조부 김익순(金益壽)은 홍경래(洪景來)의 난때에 홍경래에게 투항한 죄로 처형당하고 부친은 남해(南海)로 귀향을 가서 조사(早死)하였다. 난고선생은 별족연루를 피하기 위하여 그의 조부의 종인이었던 김성수(金聖秀)고향인 황해동 곡산(谷山)에서 은신하며 성장하였다.

조정에서 김익순에 대한 문죄는 본인에게 국한하기로 결정되자 선생의 형제들은 어머니 함령 이씨에게로 돌아왔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총으로 뿔뿔하게 살 수 없었던 그의 어머니는 이천, 가평, 평창 등지를 전전하며 살다가 영월에 정착하였다.

그런 와중에서도 그의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지난날 사연을 철저히 감추어오면서 양반가문의 전통은 이어지도록 힘썼다.

선생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공부하여 과거에 응시하겠다고 결심하여 오던 중에 영월 동현(東軒)에서 향시(鄉試)인 백일장에 참가하여 ‘논정가산총정

사(論鄭嘉山忠節死) 탄김익순죄통우천(嘆金益壽罪通于天)’이라는 시제로 글을 지어 장원(壯元)하였다.

향시 장원의 결과는 그의 어머니가 숨겨오던 그의 조부의 사실이 탄로나고 보니 선생의 충격도 극에 달하고 그 곳에서 살 수 없어 깊은 산골 영월 ‘어둔’으로 숨어 살았다.

그후 어머니로부터 자신의 집안에 대한 내력을 듣게된 선생은 조상을 지탄한 죄책감과 자기의 운명에 대한 회의로 견디다 못하여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여 삿갓을 쓰고 방랑의 길에 올라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평생을 유랑 속에서 살았다.

가는 곳마다 시를 지어 남겼고 방랑시인으로서 언문시 파지사 국한문 혼용시 풍자시 등을 읊어 정형화 된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식의 시세계를 추구하였다.

또한 민중의 한과 설움을 해학적으로 표현하여 일세를 풍미하였다. 선생은 장수황씨(長水黃氏)와의 사이에 두 아들을 두었으며 22세때에 사별하고 계실로 경주 최씨를 맞아 아들 하나를 두었다고 하나 족보에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선생은 1863년(철종14년) 3월29일 전남 화순에서 57세의 나이로 작고하여서 둘째아들 익군이 영월군 김삿갓면 외석리 노루목에 묘를 이장하였다고 한다.

그 후 200여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 허졌던 사실을 1982년 10월17일에 선생의 묘소와 ‘어둔’ 주거지를 찾아 유적지를 보존하기 위하여 현재는 관계기관과 영월군이 힘을 모아 복원 작업을 하고 있다.

영월에서는 매년 9월말에서 10월초에 김삿갓 모역이 있는 노루목마을에서 김삿갓 문화제를 개최할뿐 아니라 추모제, 김삿갓길 걷기, 추모 퍼포먼스 백일장 등 행사가 계속되고 노루목마을 주위에는 김삿갓 문학관, 영상관, 민속박물관, 미술관, 조각공원, 김삿갓에 관한 글씨와 고서적자료, 김삿갓 캐릭터 등이 전시되고 있어서 방문객의 기호에 부응하여 역사적 사실을 고증하고 있다.  
 김삿갓 문학관 광장옆에는 여행객을

은하계 들려오는 김삿갓 대중가요가 나그네의 추억을 되새겨준다.  
 그곳에서는 삿갓을 쓰고 죽장을 든 석상과 목상이 군데군데 서있어서 김삿갓의 애환을 더욱 느끼게 한다.

조각공원에는 시비는 물론 동상까지 서있고 악수터와 성황당이 있으며 밤나무 고엽나무 소나무고목이 울창한데 김삿갓묘소는 개울언덕에 묘소정화 지원급으로 잔디가 깔린 100여평의 묘역공간을 점하고 있다.

묘소의 상석은 꽤 넓은 자연석이고 망주석도 자연석으로 묘소 전면 양쪽에 세워져 있다.

묘소로 가는 길은 보도블럭으로 외줄로 깔아 놓았다.

묘소 우측 언덕에는 김삿갓을 연상하여 초가로 정자 비슷한 송판 목조건물과 내부에는 마루가 있는데 한복입은 노인 한 분이 김삿갓 시를 먹으며 써주고 김삿갓에 대한 일화를 들려주는 현대관 김삿갓이 상주하고 있다고 보던 된다.

악수터와 성황당 사이 길에는 마대산(고 1,062m)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으며 개울옆길을 따라 약 3km가면 김삿갓의 지난날의 은거지가 나온다. 그 집은 초가로 복원되어 있다.

그 거주지는 풍수지리에 의한다며는 태백산줄기의 끝이고 소백산이 시작되는 갈라지는 향으로써 유지영소(柳枝驚濤)형국이라고 알려져있다. 이는 버드나무가지에 있는 꾀꼬리집의 형국을 뜻한다고 한다.

김삿갓유적지를 탐방하는 국내외 특히 일본, 중국, 여행객들은 역경과 고난속에서도 유유자적하게 자연을 음미하고 세상을 풍자한 선생의 생애를 흠모하면서 여유와 운치를 찾아보는 뜻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끝)



우강 권이혁 전장관 에세이

## 사람(1)

생각할수록 사람이란 불가사의한 동물이다. 내 자신도 사람에 대한 관심이 크지만 세상의 많은 분들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사람에게 관하여 구체적인 개념을 제시한 사람은 거의 없다.

아마도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람은 지구촌 사람의 100만분의 1, 아니 1,000만분의 1 정도에도 못 미칠 것이다. 다음에 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관하여 몇 가지만 소개한다.

사람은 혼자서는 못 산다: 사람 인(人)자는 막대기 두 개를 세운 글자이다. 서로 의지하고 있는 형상이다. 즉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존재하는 것이지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사람을 인간(人間)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따지고 보면 사람은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3백40만 년 전이라고 추

계하고 있지만 그때부터 사람은 무리를 지어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여 살아왔다. 다른 사람과의 협조 없이 또는 다른 사람과 떨어져서 혼자서는 살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사람은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식물·대자연 등의 도움을 받으며 산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난다: 울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람은 죽음의 씨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출생하자마자 죽음을 향한 여행길을 떠나는 것이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한다. 부활이나 영혼 불멸 등에 관하여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인생에 관한 연구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불교에서는 삶을 고(苦)라고 규정했고 고(苦)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노력해 왔다.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그 답을 얻었지만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기독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죄를 지고 있다고 본다. 이 죄를 잘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음으로써 깨끗한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다고 하였다.

사람 사는 사회는 모순 덩어리이다: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 모순과 부조리가 범벅이 되어 있다. 한편에서는 욕심을 버리라고 하고, 한편에서는 야심을 가지라고 외친다. 한편에서는 여유자작(餘裕惝惝)을 외치고 한편에서는 경쟁과 도전을 주장한다. 이와 같이 상반된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환경에서 사람이 찾아나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일이 또한 쉽지 않다.

사람은 늙어간다: 죽음으로 가는 데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누가 먼저 죽음에 도달하는지는 사람이 정할 수 없는 일이다. 어쨌든 사람은 늙어간다. 나

의 경우 80세까지는 해마다 늙어가는 것을 실감했는데 85세가 넘어서는 달마다 이 사실을 느끼게 되었고 90이 가까운 오늘날에는 날마다 그 양상을 느낀다. 이러한 중에서도 우리들은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해야 하는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이다. 한편 늙으면 특히 뇌 세포의 수가 감소하고 보충이 안 되는 것이 사실이다. 뇌 세포가 매일 파괴되고 재생이 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는 까닭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 뇌의 신경세포와 세포 연결하는 시냅스(Synapse, 신경세포의 연결부)가 큰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이야기이다. 때로는 시냅스가 뜻밖의 힘을 발휘해서 세포 간의 관계를 조정하여 감소된 세포를 조직해서 뇌의 활동을 활성화시킨다고도 하니 든든한 면이 있기도 한 것 같다. 더욱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으로는 사람의 유전자는 전부 사용되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75세가 되었을 때 까지도 25%는 미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75세가 되어도 얼마든지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히노하라 시게아키(日野原重明, 1911-)라는 100세 노인의 의사가 10

1.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하다  
 나는 이 말은 언제나 잘 인용한다. 이 말은 원래 헤르만 헤세(Hermann Hesse, 1877-1962)가 한 말인데 나는 결혼식 주례를 설 때는 빼놓지 않고 이 말을 인용한다.

내용에 관하여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줄로 안다. 사랑의 대상은 사람만이 아니다. 산천초목도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애완동물은 물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기독교의 아가페 사랑이나 불교의 자비는 사랑을 단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예라고 하겠다. 부모사랑, 자식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 이웃사랑, 적사랑, 나라사랑, 인류애 등 사랑은 한 없이 많다. 아가페 사랑과 자비는 이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사랑이다.

2.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하다  
 사람이 혼자 살 수는 없고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누구나 짝은 바이다.

신세를 졌으면 진땀만큼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세상에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만큼 사람같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데 대하여 감사할 줄 안다면 그 사람은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에 속하는 것이다.

### 이 달의 시

## 무량수전 배흘림기둥 앞에 서서



청하 권대욱

목련꽃 피는 날이면  
 선묘화 핀다는 부석사에 갈 것이다

수채화 여백, 사과 발둑 긴 이랑 따라가면  
 님은 너를 밀려오는 산수유 고운, 천왕문 지나  
 민들레꽃 날아가는 돌 담장 끄트머리에  
 헛바기 속살 님은 봄이 살지고 있어  
 동심원 그려내는 안양루 풍경소리는  
 봉황산 자락으로 날려보낸다

법고울림 부딪히는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등판 기대면  
 초라한 육신에도 따스운 자비의 온기가

전해올 것이기에 번뇌 한가득 내려 볼 것이다

색바랜 단청에 켜켜이 얹힌 전설  
 모두 여기 모아두고, 햇살도 아까운 날은  
 가만 눈감고 침묵하는 명상 속에 머물면  
 큰 바위 浮石이 극락 가는 반야용선 되어  
 운회의 소용돌이 파도 건네줄까

먼 뒷날, 아주 먼 뒷날  
 시간의 빗장 닫힌 날, 해넘이 때에도  
 봉황 날고, 선묘화 핀다는 소식 오면  
 그곳까지 헤엄쳐갈 한 마리 목어 될 것이다.

## 권보아 자작곡으로 컴백...22일 음원공개

권보아가 정규 7집 '우리 원(Only One)'을 발표하며 전격 컴백한다.  
 이번 앨범은 권보아가 지난 2010년 발표했던 정규 6집 '허리케인 비너스' 이후 새롭게 선보이는 정규 앨범으로, 한층 성장한 권보아의 음악적 감성과 다채로운 음악 색깔을 만날 수 있는 곡들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에 선보일 7집 타이틀곡 '우리 원'은 권보아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으로 데뷔 이후 최초로 자작곡을 타이틀로 활동하는 만큼 더욱 화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발매된 7집은 출시에 앞서, 22일 아이튠즈를 비롯 지니, 멜론, 올레 뮤직 등 각종 음악 사이트를 통해 전곡의 음원

을 선 공개, 권보아의 새로운 음악을 기다려온 전 세계 음악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얻을 전망이다.  
 (스포츠포스트 7.17 이정혁 기자 인용)



4명명원

### 人生은 幸福을 채워가는 것

人生에서 저절로 찾아오는 幸福은 참나에 불과할 뿐이다. 만약 우리가 幸福한 시간 만큼 소중히 여긴다면 幸福하지 않은 人生의 대부분은 그저 무의미하게 흘러가 버릴 것이다.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살며, 내일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시간을 행복하게 만들어라.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은 시간'을 소중히 채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幸福이다. <편>